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0권 제3호, 2017년 12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0 No. 3, 274-283, December 2017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s://doi.org/10.15434/kssh.2017.30.3.274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연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이 한 주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Hanju Lee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hile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being bullied) and depression based on a longitudinal study design. **Methods:** Participants were adolescent cohort of 1,971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2013 and 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Resul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bullying victimization. Second, bullying victimization e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of adolescents and self-esteem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while self-resilience did not.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emotional factors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psychological adjustment of victims of bullying. Therefore, interventions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f they focus on emotional skills develop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Longitudinal study, Self-esteem, Self-resili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학교폭력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적 행위의 일종으로, 학교폭력의 결과로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 학업성취 하락, 정신 이상, 자살 위험 증가 등의 부정적 결과가 장기간 지속된다[2]. Fisher 등[3]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폭력피해자는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해의 위험성이 비피해자에 비해 2.44배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피해는 오랜 기간 사회의 주

Corresponding author: Hanju Lee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31 Sangmyungdae-gil, Dongnam-gu, Cheonan 31066, Korea.
Tel: +82-41-550-5429, Fax: +82-41-550-5545, E-mail: dalbich@smu.ac.kr

Received: Aug 24, 2017 / Revised: Nov 20, 2017 / Accepted: Nov 20,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요 이슈 중 하나로 장기간 지속된 동급생들의 괴롭힘,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기력, 슬픔, 우울 등을 경험하다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4]. 이처럼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나 주변에서 겪는 여러 생활사건은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스트레스 원이 되어 신체 이외에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무기력,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Jun과 Lee [6]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피해는 자아존중감 등 자아손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자신감으로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7]인데, 학교폭력피해자는 폭력의 원인을 '자신이 무능력해서'라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찾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결국 다른 정서적 문제나 행동문제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6].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10대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8].

Sowislo와 Orth [9], Lee 등[10]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어려운 일로 인한 근심, 걱정을 잘 극복하고 적절한 해결방안과 전략을 찾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울의 가능성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을 더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학교폭력피해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은 학교보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위험이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긍정적 발달결과를 보여주는 학생들을 '탄력적'이라고 말한다[11]. 즉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능력으로서 탄력성은 발달상의 불리함과 역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며 스트레스나 위기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다[12].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삶의 변화 또는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13]. 이처럼 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자원이면서 능력으로 정의된다[14].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정신적 손상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학교나 지역사회의 지지는 그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라는 정서적 자원이 학교폭력피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우울에 어떠한 보호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향후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시도되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 파악의 필수적 요소인 시간적 선행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로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인과성, 그 과정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보호적 기능을 실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우울의 정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을 파악한다.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종단적 조사연구로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로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

교 1학년의 3개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은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총 7,071명(초1 2,342명, 초4 2,378명, 중1 2,351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초1에서 중1 (초1 패널), 초4에서 고1 (초4 패널), 중1에서 대1 (중1 패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이 파악되었다. 자료는 1차년도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수집되었고, 2차년도부터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4패널의 패널유지율은 2013년도 88.0%, 2014년도는 87.1%이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0년에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IRB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전반적 개요와 언제든지 참여 거부 가능함을 설명하고 참여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조사자료가 관리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적절한 검증을 위하여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응답이 모두 완료된 대상자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4차 시기인 2013년의 자료와 5차 시기인 2014년의 자료를 패널ID로 가로결합한 후에 두 시점의 조사를 모두 완료한 총 1,97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후에 2013년에 조사가 시행된 일반적 특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로 하고, 2014년에 조사가 시행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였다(Figure 1).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변인은 일반적 특성,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이다.

1) 일반적 특성

성별, 가족구성, 인지된 경제상태, 건강상태,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가족구성은 조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양부모 가족', 조부모를 포함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는 '한부모 가족', 부모 중 어느 누구와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조부모와 자녀, 기타)는 '그 외 가족'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는 '매우 건강함'으로 '건강한 편이다'는 '건강함'으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강하지 못함'으로 재분류하였다. 본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로 조사되었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들의 심한 놀림과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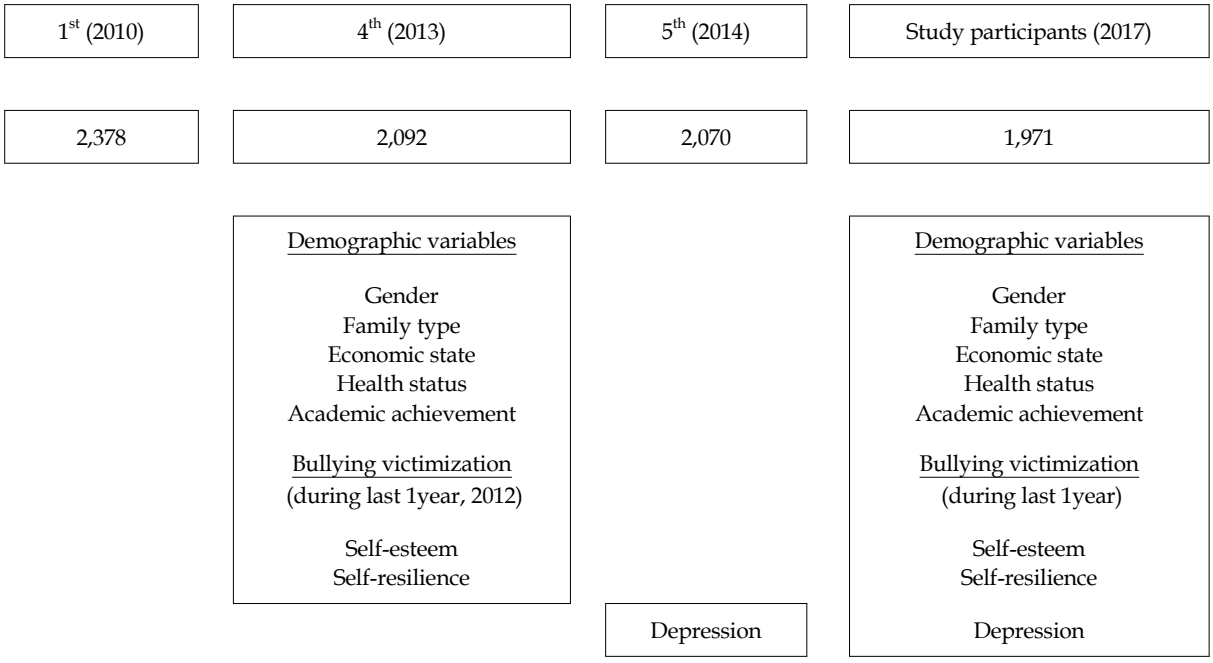

Figure 1. Study participants and variables.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 총 7개 항목에서의 지난 1년간 피해여부를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고, 피해종류별로 1년간의 경험횟수를 곱하여 피해종류별 경험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이후 피해종류별 경험정도를 합산하여 최종 피해경험정도로 점수화하였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 [15]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문항인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문항인 '나는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변환을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2013년 4차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Cronbach's α는 .84였다.

4) 자아탄력성

Block & Kreman [1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의 구성은 총 14개 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3년 4차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5) 우울

김광일, 김재황, 원호택[17]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기운이 별로 없다' 등의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 5차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기초통계분석과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되었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정도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후 일반적 특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차이는 각각 t-test와 ANOVA를 실시한 후 Scheffé test로 유의수준 .05에서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다중매개분석이므로 Hayes [18]의 conditional process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2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들은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남학생이 52.8%, 여학생이 47.2%로 구성되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더 높고, 우울은 더 낮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양부모와 같이 산다는 응답이 90.4%로 가장 많았다. 양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한부모 가정, 기타 가정(조부모나 친척)보다 연구대상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덜 우울을 경험하였으나, 자아탄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을 잘 산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9.6%, 못 산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6.6%로 대부분의 청소년(73.8%)들이 본인의 가정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였다. 본인의 가정을 잘 산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우울은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7%의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높았고 우울은 낮았다.

전체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53.3%의 연구대상자들이 만족한 편이라고 하였고, 46.7%의 연구대상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학업성적에 만족하는 연구대상자들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높았고, 우울은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3.05점, 자아탄력성 평균점수는 3.00점이었고, 우울 평균점수는 1.77점이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자들은 비피해자에 비해 유의하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낮았고, 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6.0%가 지난 1년간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조롱,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의 비행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경험은 다중응답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별 총 피해의 정도를 합산한 결과 1회에서 65회까지 다양하였다(Table 2).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폭력은 심한 욕설이었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우울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는

Table 1.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esteem		Self-resilience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040 (52.8)	3.11±0.46	5.63	3.06±0.48	6.18	1.70±0.55	-5.99
	Female	931 (47.2)	2.99±0.47	(<.001)	2.94±0.41	(<.001)	1.86±0.59	(<.001)
Family type	Live with both P[a]	1,782 (90.4)	3.07±0.46	5.08	3.01±0.45	0.85	1.76±0.57	5.36
	Live with single P[b]	171 (8.7)	2.99±0.47	(.006)	2.96±0.49	(0.43)	1.85±0.59	(.005)
	Live with other[c]	18 (0.9)	2.82±0.56	a>c	2.98±0.37		2.14±0.82	a<c
Economic status	Upper[a]	386 (19.6)	3.17±0.47	23.94	3.08±0.48	8.98	1.62±0.53	33.75
	Middle[b]	1,455 (73.8)	3.04±0.45	(<.001)	2.99±0.44	(<.001)	1.79±0.56	(<.001)
	Lower[c]	130 (6.6)	2.87±0.55	a>b, c	2.90±0.48	a>b, c	2.08±0.69	a<b, c
				b>c				b<c
Health status	Very healthy[a]	635 (32.2)	3.24±0.45	59.43	3.20±0.46	101.53	1.60±0.54	100.09
	Healthy[b]	1,231 (62.5)	2.99±0.43	(<.001)	2.92±0.41	(<.001)	1.83±0.56	(<.001)
	Unhealthy[c]	105 (5.3)	2.71±0.48	a>b, c	2.77±0.42	a>b, c	2.14±0.60	a<b, c
				b>c		b>c		b<c
Academic achievement	Very satisfaction[a]	195 (9.9)	3.38±0.44	14.60	3.29±0.52	30.49	1.60±0.57	65.53
	Satisfaction[b]	855 (43.4)	3.12±0.43	(<.001)	3.00±0.41	(<.001)	1.73±0.56	(<.001)
	Dissatisfaction[c]	768 (38.9)	2.94±0.44	a>b, c, d	2.96±0.44	a>b, c, d	1.84±0.56	a<b, c, d
	Very dissatisfaction[d]	153 (7.8)	2.86±0.50	b>c, d	2.92±0.51		1.94±0.69	b<c, d
Bullying victimization	Yes	119 (6.0)	2.90±0.46	3.56	2.92±0.454	2.11	1.95±0.63	-3.36
	No	1,852 (94.0)	3.07±0.46	(<.001)	3.01±0.45	(.040)	1.76±0.57	(.001)
Total		1,971 (100.0)	3.05±0.46		3.00±0.45		1.77±0.57	

P=Parents.

Table 2. Bullying Type and Frequency (*N*=119)

Type	n (%)	Minimum	Maximum	M±SD
1. Be teased or mocked severely	37 (1.9)	1	30	6.05±7.55
2. Be treated as an outcast	36 (1.8)	1	6	1.94±1.37
3. Be assaulted	12 (0.6)	1	10	2.67±2.67
4. Be threatened	9 (0.5)	1	5	2.44±1.51
5. Be robbed money or goods	13 (0.7)	1	10	4.46±3.57
6. Sexual harassment	2 (0.1)	1	1	1.00±0.00
7. Severe vilification	67 (3.4)	1	50	6.94±10.78
Total		1	65	7.34±10.73

Note; Multiple reply.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05, p=.024). 자아존중감(r=-.40, p<.001), 자아탄력성(r=-.26,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r=.51, p<.00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적 상관관계(r=-.08, p<.001)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06, p=.006).

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4). 첫번째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01, t=-2.61, p=.009), 자아존중감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b=-.35, t=-11.74, p<.001).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우울에 대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b=.00, t=0.57, p=.569).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Sobel 검증결과 z값이 2.54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z=2.54, p=.011).

두 번째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01, t=-1.99, p=.047), 자아탄력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5, t=-1.73, p=.084).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Sobel 검증결과 z값이 1.22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z=1.22, p=.22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6.0%가 지난 1년간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조롱,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의 비행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의 정도는 대상자별로 1회에서 65회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폭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971)

Variables	Depression	Self-esteem	Self-resilience	Bullying victimization
	r (p)	r (p)	r (p)	r (p)
Depression	1.00	-.40 (<.001)	-.26 (<.001)	.05 (.024)
Self-esteem		1.00	.51 (<.001)	-.08 (<.001)
Self-resilience			1.00	-.06 (.006)
Bullying victimization				1.00

Table 4. Analysis of Mediate Effect by Regression (*N*=1,971)

Variables	Self-esteem		Self-resilience		Depression	
	b	t (p)	b	t (p)	b	t (p)
Gender	.09	4.57 (<.001)	.10	5.20 (<.001)	-.09	-3.68 (<.001)
Family type	-.05	-1.64 (.101)	-.00	-0.14 (.891)	.03	0.94 (.347)
Economic status	-.06	-3.18 (.002)	-.03	-1.39 (.166)	.10	4.08 (<.001)
Health status	-.22	-12.80 (<.001)	-.23	-12.95 (<.001)	.12	5.15 (<.001)
Academic achievement	-.14	-10.85 (<.001)	-.08	-6.19 (<.001)	.10	6.53 (<.001)
Bullying victimization	-.01	-2.61 (.009)	-.01	-1.99 (.047)	.00	0.57 (.569)
Self-esteem					-.35	-11.74 (<.001)
Self-resilience					-.05	-1.73 (.084)
R^2	.17		.13		.21	
F (p)	67.11 (<.001)		47.19 (<.001)		66.09 (<.001)	

력피해 경험률인 6.0%는 지난 7월 교육부[19]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인 0.5%(중학생)보다 높은 수치였다. 두 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및 크기, 조사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387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면서 학교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한 직접 조사였고, 교육부의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초4에서 고3까지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419만명(전체 학생 대비 94.9%의 참여율)이 응답한 전수조사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중학생의 학교폭력피해경험률 6.0%는 Craig 등[20]이 11, 13, 15세로 구성된 40개 국가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여부에 관한 단면 자가보고 연구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12.6%보다 낮은 수치였다. Craig 등[20]이 조사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고, 남학생은 8.6~45.2%, 여학생은 4.8~35.8%로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Craig 등[20]은 이런 차이를 국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에서 비롯된 문화적, 사회적 차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보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규제법이나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중생에게 그 피해사실이 보고되었음에도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매뉴얼행동지침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여중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예측됨에도 Wee class를 통한 피해자 정신상담과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살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보도된 것[4]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실효성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apouna와 Wolke [21]는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하여 학년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동료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시기인 중학교 1학년(12세에서 14세)에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Sapouna와 Wolke [21]는 저연령과 고연령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1)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역량의 증가, 2) 사회적 기술과 경험의 변화, 3) 사회적 활동과 학교급에 따른 학습량의 변화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 중1의 조사로서 이 수치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서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코호트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학교폭력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을 파악한 본 연구에서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조롱,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등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우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2,6]과 일치함을 보였다. 우울은 학교폭력피해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주요 결과 중의 하나로[22], 연구자들은 학교폭력피해가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울이라는 지연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22]. Copeland 등[23]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절에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결국 성인기에 우울감으로 발현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폭력피해에 의해 야기된 우울감이 성인기의 약물이나 물질 남용, 자살사고로까지 이어짐을 보였다[24].

Fisher 등[3]은 빈번한 폭력피해의 경험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12살 청소년은 이런 스트레스를 운동이나 상담 등의 긍정적 대처방법보다 자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Fisher 등[3]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흡연이나 음주, 운동, 과도한 음식소비 같은 대안적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전략적 선택권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이런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대처 전략 제공은 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자살 등의 극단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현장에서 필요하다. 즉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보고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상담교사를 활용한 적극적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도록 대안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지역사회와 적극적 연계관계를 갖고 위험청소년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로 기능하였다. Choi와 Lee [25]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로 가능하였다. Sapouna

와 Wolke [21]는 3,13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 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1년 후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한 연구에서 동일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 여 청소년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우울의 정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자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강화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대책에서 강화되어야 할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의 발달을 지지하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재난적 사건들에 잘 적응하고 이겨내도록 할 수 있는 중재방법들을 모색하게 한다. 탄력성은 청소년들이 삶의 부정적인 사건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원이자 특성으로 Zhou 등[27]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448명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우울감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의 탄력성과 부적의 관계에 있었지만 이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 사이의 탄력성의 매개를 확인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 등[28]은 높은 수준의 탄력성이 있는 개인들은 해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한다고 하였다. Hu, Zhang과 Wang 등이 수행한 메타분석연구[29]에서도 탄력성은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연관이 있고 부정적 정서, 불안, 우울과 부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즉, 자아탄력성 같은 심리적 자원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사건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을 일부 연구자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14]으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긍정적 관계의 맥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는 능력으로 보았다[21]. 즉 청소년들은 발달 과정 속의 존재이므로 부정적 사건의 경험과 그 영향력도 발달생태학적 모델 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탄력성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황(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질적 특성을 간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이 갖는 매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통제하였지만 그들의 사회적 관계의 질(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은 간과함으로 부정적 사건이 초래하는 심리적 결과에서 탄력성의 역동적 기전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탄력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Werner [30]는 스트레스와 보호요인 사이의 균형이 바람직하다면 학교폭력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된 청소년들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적 상황이 보호적 요소들을 능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면 가장 탄력적인 청소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피해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완적 대책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조사연구로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피해경험이 2년 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6.0%가 2012년에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조롱, 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의 비행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하였고, 2014년에 조사된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의 우울감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건강성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본 연구는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대상자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정서적 특성이 시간이 흐른 뒤에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인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조사자료의 2차 분석연구라는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외에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 자원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2차 분석 연구로써 사용가능한 변인만을 고려하여 현상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다.

둘째,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 간격(주기)이 다르게 설정되어있다. 문항별 조사주기는 크게 매년조사와 2~3년 간격의 주기조사, 특정 시점 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우울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조사된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았기에 결과변수로서 2014년의 우울점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해관계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the preven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0 [cited 2017 Aug 10].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2. Klomek AB, Sourander A, Gould M. The association of suicide and bullying in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A review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search finding.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010;55(5):282-288.
3. Fisher HL, Moffitt, TE, Houts RM, Belsky DW, Arseneault L, Caspi A. Bullying victimization and risk of self harm in early adolescence: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2012;344:e2683. https://doi.org/10.1136/bmj.e2683.
4. Paek JK. Jeonju suicide girl was victim of school violence [Internet]. Seoul: YTN; 2017 [cited 2017 September 18]. Available from: http://www.ytn.co.kr/_ln/0115_201709181527098535
5. Hochstetler A, DeLisi M, Johnson GJ, Johnson WR. The criminal victimization-depression sequela: Examining the effects of violent victimization on depression with a longitudinal propensity score design. Crime and Delinquency. 2014;60(5);785-806. https://doi.org/10.1177/0011128710382261
6. Jun SH, Lee SS.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7;28(2):131-155. https://doi.org/10.14816/sky.2017.28.2.131
7. Michaels ML, Barr A, Roosa MW, Knight GP. Self-esteem: Assess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a multi-ethnic sample of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Sowislo JF & Orth U.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2013;139(1):213-240. https://doi.org/10.1037/a0028931
8. Taylor KA, Sullivan TN, Kliewer W. A longitudinal path analysis of peer victimization, threat appraisals to the self, and aggressi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Youth Adolescence. 2013;42(2):178-189. https://doi.org/10.1007/s10964_012_9821_4
9. Sowislo JF, Orth U.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2013;139(1):213-240. http://da.doi.org/10.1037/a0028931
10. Lee C, Dickson DA, Conley CS, Holmbeck GN. A closer look at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y: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cross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14;33(6):560-585.
11. Rutter M. Implications of resilience concepts for scientific understanding.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06; 1094:1-12. https://doi.org/10.1196/annals.1376.002
12. Wi JH, Cho GP. An anla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14(8): 237-264.
13. Kim BS, Park MS, Min YG.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of youth in the school life adjustment: the model effect of ag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5B):2517-2526.
14. Connor KM, Davidson JR.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2003;18(2):76-82.
15.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6.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9;70:349-361.
17. Kim K, Kim J, Won H.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Chungang Juksung Publisher; 1984.
18. Hayes A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13. p. 1-494.
19. Ministry of Education. 2017 1st School Violence Survey Report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7 [cited 2017 Aug 10].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57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20. Craig W, Harel-Fisch Y, Fogel-Grinvald H, Dostaler S, Hetland J, Simons-Morton B, et al. A cross-national profile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in 40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2009;54:216-224. https://doi.org/10.1007/s00038-009-5413-9
21. Sapouna M, Wolke D. Resilience to bullying victimization: The role of individual, family and peer characteristics. Child Abuse & Neglect. 2013;37:997-1006. https://doi.org/10.1016/j.chiabu.2013.05.009
22. Stapinski LA, Araya R, Heron J, Montgomery AA, Stallard P. Peer victimization during adolescence: Concurrent and prospec-

tive impact on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xiety, Stress, and Coping. 2015;28(1):105-120. https://doi.org/10.1080/10615806.2014.962023

23. Copeland WE, Wolke D, Angold A, Costello EJ.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2013;70(4):419-426. https://doi.org/10.1001/jamapsychiatry.2013.504
24. Reed KP, Nugent W, Cooper RL. Testing a path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age, and bullying victimization and violent behavior, substance abuse,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015;55:128-137.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5.05.016
25. Choi MR, Lee IH.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5:363-383.
26. Kim HS, Kim BS.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7;27(1):23-37.
27. Zhou Z, Liu Q, Niu G, Sun X, Fan C.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in Chinese childre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resilience and mindful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7;104:137-142. https://doi.org/10.1016/j.paid.2016.07.040
28. Chi P, Li X, Du H, Tam CC, Zhao J, Zhao G. Does stigmatization wear down resilience? A longitudinal study among children affected by parental HIV.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6;96:159-163. https://doi.org/10.1016/j.paid.2016.03.001
29. Hu T, Zhang D, Wang J. A meta-analysis of the trait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5; 76:18-27. https://doi.org/10.1016/j.paid.2014.11.039
30. Werner EE.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S Luther, editor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408.